

17. 분재 기술

오미야 분재 마을의 7 곳의 분재원에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것과 같은 재배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수 세기에 걸쳐 사람들의 손을 통해 소중하게 이어져 내려온 기술입니다.

전정

전정은 불필요한 가지나 너무 자란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으로 분재를 다듬을 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는 요령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잘라낸 가지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분재 장인들은 가지를 자른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철사 걸기

철사 걸기는 분재의 나무가 성장하면서 뻗은 가지의 형태를 다듬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나무의 성장 단계를 적절히 살피면서 숙련된 기술로 가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마른 가지 만들기 : 신과 사리

이는 상록수인 송백에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가지와 줄기의 심지를 드러낸 마른 나무를 만들어 바람이나 눈, 천둥 등에 노출된 나무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마른 나무가 되는 부분이 가지인 경우에는 ‘신(神)’, 줄기인 경우에는 ‘사리(舍利)’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신 전용의 특별한 펜치나 커터, 사포를 사용해 껍질을 제거하여 만듭니다. 마무리할 때 방부제로 석회유황합제를 사용해 부식을 막아줍니다.

사리(舍利)는 참배 대상인 석가의 유골을 말하며, 신은 이름 그대로 ‘신(神)’을 의미합니다. 그 유래는 말라서 하얗게 된 줄기가 마치 백골 같다고 하여 고귀한 ‘사리(舍利)’에 빗대어 사리라 불리고, 가지가 마른 부위는 부처로 대치되는 신(神)으로서 ‘신’이라고 불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조형미를 신불의 이름을 빌려 ‘사리,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잎따기

낙엽수 분재에서는 초여름에 잎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겨울이 되기 전에 나무를 작은 새잎이 달린 상태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분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만 잎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분갈이

분재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옮겨심기 전에는 너무 자라서 엉켜버린 뿌리를 다듬어 줍니다. 또한 분갈이에는 화분 내부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주기

물주기는 재배 작업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는 매일 물을 주어야 하며, 건강한 나무일 경우 물을 잘 흡수합니다. 약해진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으므로 분재에 물을 줄 때는 흙의 건조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